

이탈리아의 선구적 다큐멘터리리스트 체칠리아 만지니

알렉산드라김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서야 발견한 매우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리스트와 그의 작품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볼까 합니다. 금년 열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수확은 체칠리아 만지니(1927.01.31~2021.01.21)였습니다.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다큐멘터리리스트로 불리기도 하는 만지니는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논쟁적인 감독 중 한 명이자 반파시스트 사회주의자였던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와 친분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감독이지만, 여태까지 국내외에서 잊혀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세상을 떠나며 국내외에서 기획전이 열리면서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솔리니는 만지니의 단편 두 작품에서 내레이션을 담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를 구하고, 자신을 위한 스쿠터를 사고, 거대한 석유화학 공장의 도시인 브린디시에 살기를 원하는 대단할 것 없는 꿈을 꾸는 주인공 토마소와 그의 친구들의 단조롭고 방향하는 일상을 보여주는 <미지의 도시>(1958). 그리고 권위적인 기관들에 대한 타파를 원하고, 불량한 이방인양 여기는 아이들 자신들이 늑지대이자 도피처인 ‘마란’에서 지내는 모습을 담아낸 <습지의 노래>(1961).



<미지의 도시>(1958)

만지니는 소재와 대상에 다가서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쟁투적인 다큐멘터리리스트인 동시에 사회에 저항하는 평범한 노동 계급 군상들과 그들이 놓인 사회적 안팎의 문제들에 관하여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매우 인상적인 감독이었습니다. 얼핏 영화사 한 칸을 장식하는 중요한 영화사조인 네오리얼리즘 계보가 연상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계열 안에 수렴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결을 주조해냅니다. 최근엔 <마틴 에텐>(2019)으로 (이 영화는 그 ‘이탈리아의 아나키스트’ 아리코 말라테스타의 푸티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목받는 피에트로 마르첼로 같은 감독도 자신만의 영역을 뻗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자-되기>(1965, 자막 없음)

관람했던 만지니의 영화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단편이고, 반응이 가장 뜨거울만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매스미디어에서 소비되는 여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연이어 갑자기 폭발하는 푸티지가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마치 거대 제국들이 양산하는 미디어가 표백해낸 여성상에 도전하려는 듯이, 본 작품은 혹독한 노동의 현실을 건디는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을 평범한 이들과의 괴리를 대조하며 착취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자’가 된다는 것은 광고와 화보 속 여성성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사적 공간이 분리된 일터에서 생계를 위한 혹독한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공적/사적 공간에서 하나를 택하기만을 강요받지만, 동시에 생계와 가사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굴레에 속박된 이들 말입니다. 12시간 이상의 중노동, 당시 주5일제 시행도 없이 주6일을 풀로 근무하는 탓에 노동을 하고 나면 녹초가 되고, 휴일 하루에는 집안일과 빨래를 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는 여성들. 이 점에서 만지니가, 그리고 이 작품이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일할 자유를 잃은 대가로 여성들은 무엇을 얻을까. 위선자들의 대답은 '화목한 가정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성만 갖춘 생활로 보상한다. 돌과구를 주기보다는 투쟁의 출발점에 세운다. 그것이 현대 세계의 토대가 된다.”

영화는 생산 분야 전반, 과학적 전문 실험실, 문화 사업, 시위 현장 모든 곳곳에 존재하는 여성들을 비취가며 “반전 운동의 현장에도 여성들이 있다. 다른 투사들처럼 이들도 고초를 겪는다. 이들은 여성 해방의 주체가 자신뿐임을 알고 개인의 발전 없이는 결코 공동의 발전도 없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한다.” 라는 끝을 맺습니다.



<두 개의 잊혀진 상자>(2020)

이 영화는 체칠리아 만지니의 유작이 되었습니다(피올로 피사넬리 공동 감독). 영화는 어느덧 아흔이 넘은 노인이 된 만지니가 자신의 집에서 기억을 더듬어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그의 집엔 스탈린과 마오의 캐리커처,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앨범, 민요 애국가 LP판 등이 자리 잡고 있고, 만지니는 이탈리아 저항군 주제가, 아나키즘 노래들은 참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국 열강들인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에 맞서 저항하여 해방을 쟁취해낸 당시 베트남 인민들을 가까이서 담아내기 위해 남편인 리노 델 프라와 함께 베트남으로 떠났던 만지니가 자신의 잊혀진 과거의 기억을 소생시키고 복원해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나는 서서히 기억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제게 어떤 기억을 상기시키곤 하지요. 나는 이 두 개의 상자를 기억 못했어요. 상자를 열고, 사진을 고르면서 내가 이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것들이 다시 내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시간을 재발견하게 하고, 공간을 복구하고, 감각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잊지는 않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술회하는 노년의 만지니와 당시 베트남 인민들의 스틸 사진들과 상황 속 교차시키는데(과거의 영상 푸티지로 삽입된 것은 미군의 폭격 장면이 유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봉인된 기억 사이의 시차를 탐색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만지니는 마을과 항구를 돌아다니며 호치민의 자취를 좇아 곳곳을 둘러보면서 베트남이란 나라에 강하게 매료됐으며,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힘을 느꼈는데 사진작가에게 베트남이란 나라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식민주의에 거세게 저항하며 디엔비엔푸 전투로 프랑스를 몰아냈으며, 연이은 미제국의 침략에도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하면서 강인하게 저항하는 투사가 되고 싶어했던, 절대 항복하지 않는 베트남의 인민들. 천진난만하게 거리에 뛰어나와 리노 델 프라와 체칠리아 만지니 부부를 향해 ‘소련 아저씨, 아주머니’다라며 몰려와 둘러 싸는 아이들. 벤치에 마주 앉은 커플. 미군의 전투기가 레이더망을 피해 날아오자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호위대가 델 프라와 만지니 두 사람을 도랑으로 밀친 다음 위로 몸을 던쳐 그들을 보호했던 순간. 촬영지에서 숙박할 땐 베트남인들이 물소와 함께 자는 갈대로 지은 오두막집인 파일로테에 묵었는데, 그 때 발견한 베트남 여성들을 언급하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전선에서 경보 알람 및 해체를 담당하고, 연료 탱크 공략하며 충격만으로 미 전투기 격추시키는 기지를 발휘하는 이들 말입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물탱크로 가서 다같이 빨래를 모두 같은 동작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대화가 안 통했죠.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만 옷을 다루고 빠는 방식의 통일화를 보면 여자들 사이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이대로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며 차려 입겠다고 하더니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전투에 나갈 것처럼 총도 메고. 무장한 걸 자랑스러워했죠. (그들이) 총을 들고 싸우는 이유는 언젠가 자유를 얻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연일 시시각각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전쟁통에서는 영화를 제작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당분간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 대본 집필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던 부부는 결국 호치민 주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호치민 주석님. 관심을 가져주시라 믿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희 부부는 베트남에 온지 꽤 되었습니다. 저는 온지 6개월이 되었고 아내는 3개월 차가 되었는데, 베트남의 일상, 인부, 농민, 군인에 애정을 느끼게 되어 영화 대본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고통을 헤아리실 거라 믿습니다. 1966년 3월 27일 하노이에서.”

그러나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돌아가고 싶었던 그들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당시 영화 제작도 무산되었기에 상실감으로 인한 고통은 극심했지만, 결국 베트남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현재 만지니의 말로 막을 내립니다. 당시에 작업을 내놓기 위해 몰두했지만 결국 놓여둬야만 했던 작업.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현재의 시점에서라도 회고하는 작품을 유작으로 남긴 만지니는 자신의 숙원 하나를 결국 풀어놓고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체칠리아 만지니 같은 감독을 그의 사후에야 만나게 되어 못내 아쉬우면서도, 지금에서라도 그가 남긴 유산들을 마주하게 되어 다행입니다.